

지역아동센터의 예체능교육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배나라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atisfaction of th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in Local Child Care Center

Na-Rae Bae

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체능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예체능교육이 보다 내실화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의 17개 지역아동센터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예체능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예체능교육을 받은 아동 419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체능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3년동안 예체능교육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 중 3개 기관이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체능교육을 실시한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다. 2년동안 예체능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2개 기관이었으며, 3년동안 한해라도 예체능교육을 지속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었다. 예체능교육 진행교사의 전공 일치도를 살펴보면, 17개 기관의 미술, 음악교육은 모두 교양과정으로 자격을 이수한 비전공 경력자였다. 그러나 체육교육에서는 체육을 전공한 대학생들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체능교육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예체능교육은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성별로 보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예체능교육에 대한 도움이 컸다고 했다. 예체능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참여학생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추후 예체능교육에 대한 재참여 희망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학생 대부분 참석하겠다고 하는 응답을 하였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재참여 희망도가 더 높았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 질 높은 예체능교육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친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배우는데 예체능교육이 활용될수 있다. 또한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창의적인 예체능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needed to improve the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vided by local child care centers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and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 local child care centers in Gyeonggi-do, South Korea, and the situation of the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operated from 2014 to 2016 were examined. In addition, 419 children who received the education were surveyed to evaluate their level of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regards the status of the arts education from 2014 to 2016, it was observed that three of the 17 local child care centers did not have any arts, music or physical education at all, while six of them continuously implemented all three of these programs during this period of time. Two and six of the 17 institutes had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for two years and one year, respectively. All of the teachers who ran the arts and music education programs of the 17 institutes were arts and music majors who were certified teachers of the liberal arts. However, the physical education programs were run as volunteer activities by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The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showed that they were helpful for the overall life experience of the children and that they were more helpful for the boys than for the girls.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was high for most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however the boys were more satisfied than the girls. When asked whether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arts,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again, mos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ould do so. The boy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again than the girls. Based on this study, in order to enhance the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of the children using the local child care centers, higher quality education is needed. Arts and music education can be used to help children to learn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ir friends. In addition, it seems to be necessary to enhance the education by setting goals that are suitable for its purpose, in order to provide creative arts and music educ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physical health and emotional stability of the children.

Keywords : Arts Music and Physical Program, Creativity, Differentiated Program, Human Voice Education, Local Child Care Center.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Tel: +82-42-600-6520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July 7, 2017

Revised (1st July 27, 2017, 2nd August 10,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우리사회는 200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돌봄과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가 함께 해결하고 담당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과거 아동의 성장과 양육을 개별 가정에서 담당했던 시대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아동의 돌봄과 양육이 사회적 공동책임이 되었다.

아동 돌봄과 양육의 부담은 빈곤가정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집중되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중반 다양한 부분에서 낙후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월29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102개로, 시도별로는 경기지역이 75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지역 414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1].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각 영역별로 아동의 욕구와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본프로그램은 보호프로그램으로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및 안전(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 안전의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즐거움과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성장 촉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관람, 견학, 캠프, 여행) 및 참여활동(공연, 행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지원프로그램은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연고자상담, 아동상담) 및 가족지원(보호자교육, 행사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계하는 홍보(기관홍보) 및 연계(인적 연계, 기관연계)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중 예체능교육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2]. 예체능교육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홍섭과 백중열(2014)은 농어촌 학생들의 예체능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예체능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예체능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체능교육보다 지역아동센터 혹은 방과 후 교육에서 실시하는 예체능교육이 상당히 즐거웠으며 재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미술, 체육, 음악 순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은 음악, 체육, 미술 순으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체육과 음악교육은 아동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미술교육은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3].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예체능교육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을 위한 차별화된 예체능교육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4].

지역아동센터의 평일 운영시간은 평균 10시간이며, 시작과 종료시간은 센터마다 다르지만, 통상 9시부터 12시 이전이며, 종료시간은 19시부터 22시이다. 김성자(2012)의 연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지역아동센터 평일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보면 센터마다 다르긴 하나 총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주로 예능교육과 학습지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면 외부강사비로 많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예능교육이고, 운영에 있어 수행인원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 역시 예능교육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예능교육과 체육교육 개설수가 가장 많았다. 운영비의 경우 평일과는 달리 주말시간에 예체능교육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대학생, 전문가) 인원이 많아 운영비는 평일에 비해 낮았다[5].

2.2 예체능 교육

최근 들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철학과 전략을 목표로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아동들의 성격과 기질, 인격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국가적 차원으로 내세워지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들이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공부가 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되게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창의적 인성교육의 첫걸음인 질 높은 예체능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프로그램 속에 예체능교육이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 미술, 체육지도를 하고 있다. 음악활동은 초기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신체적 발달, 정서발달, 사회적 발달, 창의적 발달을 용이하게 하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이 아동의 일생동안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게 되는 자양분이 된다. 또한 음악활동은 기쁨과 즐거움, 창조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 의해 감정을 성숙시키는데 도움을 준다[6]. 미술활동은 인간의 자유로운 내면의 창조성을 함양하며, 다양한 미술매체를 통해 감각적 예술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동의 개성과 독창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술활동은 아동의 생각과 소통의 효과적인 방식을 배우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7]. 체육활동은 인격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신체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향상, 창의력 향상을 경험하며 신체의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알게 하여 유능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8].

아동들의 예체능교육은 미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을 배양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체능교육은 창조적이며 개인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 4차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1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예체능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예체능교육에 대한 이용아동들의 만족도, 추후 재교육 희망도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를 위해 서비스 이용아동 459명을 설문하여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19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인 예체능교육의 도움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 예체능교육의 만족도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예체능교육 현황(2014년~2016년)

본 연구에 참여해준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이며, 이용아동은 평균 32명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예체능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예체능교육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 중 3개 기관(C,D,I)이었으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체능교육을 실시한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 중 6개 기관(E,G,H,K,Q,R)이었다. 2년 동안 예체능교육을 운영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2개 기관(B,M)이고, 3년 중 최소 1번은 예체능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6개 기관(A,F,I,L,O,P)이었다.

A기관의 경우, 2014년에 미술프로그램인 북아트를 진행하였다. B기관은 2014년에 기타와 우쿠렐레를 배우는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는 필라테스를 배우는 체육프로그램, 도자기 만들기와 목공예 작업을 하는 미술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예체능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C기관과 D기관은 책읽기, 논술, 영어, 수학 등 학습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예체능교육은 3년 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E기관을 경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오카리나 배우기로 음악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F기관은 2014년과 2015년에는 예체능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에는 미술프로그램인 가족공예를 실시하였다. G기관은 2014년, 2015년, 2016년 연극교실을 운영하였다. H기관은 2014년, 2015년, 2016년 체육프로그램인 풋살교실을 운영하였다. I 기관의 경우 2014년은 예체능교육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5년에는 체육프로그램인 풋살교실을 운영하였다. 2016년은 예체능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J기관은 C기

관, D기관처럼 수학, 영어, 논술 등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예체능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K기관은 2014년에는 미술프로그램인 북아트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미술프로그램인 공예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프로그램인 난타교실을 실시하였다. L기관은 2014년, 2015년에는 예체능교육이 없었고, 2016년에는 도자기 만드는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M기관은 2014년에는 예체능교육을 실시 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체육프로그램인 풋살을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음악프로그램인 기타 교육을 실시하였다. O기관은 2014년과 2016년에는 예체능교육을 운영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생활 속의 체육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P기관은 2014년, 2016년에는 예체능교육을 운영하지 않았고, 2015년에 미술 프로그램으로 그리기활동을 실시하였다. Q 기관은 2014년에는 생활 속의 체육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으로 하모니카 배우기를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생활 속의 체육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인 우쿠렐레 교육을 하

였다. 2016년에는 체육프로그램인 풋살교육과 음악프로그램인 피아노교육을 실시하였다. R기관은 2014년은 체육프로그램인 풋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생활 속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생활 속의 체육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인 우쿠렐레교육을 실시하였다.

4.2 예체능교육 진행교사의 전공일치도

예체능교육 진행교사의 전공 일치도를 살펴보면, 17개 기관 중 많은 기관의 진행교사들은 정규과정을 통한 수업과 이수 혹은 전공관련 대학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교양과정으로 민간자격증을 이수하여 경력을 쌓은 비전공 경력자가 일반적이였다. 또한 이는 미술과 음악에서 대부분 나타났다. 체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체육을 전

Table 1.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Agency	Personnel	Year		
		2014	2015	2016
A	26	Art(Book Arts)	×	×
B	39	Music (Guitar, Ukulele)	Athletic (Pilates) Art(Ceramic)	×
C	37	×	×	×
D	25	×	×	×
E	22	Music (Ocarina)	Music (Ocarina)	Music (Ocarina)
F	40	×	×	Art(Craft)
G	40	drama	drama	drama
H	42	Athletic (Futsal)	Athletic (Futsal)	Athletic(Futsal)
I	24	×	Athletic (Futsal)	×
J	40	×	×	×
K	28	Art(Book Arts)	Art(Craft)	Nanta
L	19	×	×	Art(Painting)
M	27	×	Athletic (Futsal)	Music(Guitar)
O	46	×	Athletic	×
P	45	×	Art (Painting)	×
Q	16	Athletic (Life Sports) Music (Harmonica)	Music (Ukulele) Athletic (Life Sports)	Music(Piano) Athletic (Futsal)
R	28	Athletic (Futsal)	Athletic (Life Sports)	Music(Ukulele) Athletic (Life Sports)

Table 2. Status of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Leader Major

Agency	Year		
	2014	2015	2016
A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	×
B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
C	×	×	×
D	×	×	×
E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F	×	×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G	Non-Major	Non-Major	Non-Major
H	Major Volunteer	Major Volunteer	Major Volunteer
I	×	Major Volunteer	×
J	×	×	×
K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L	×	×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M	×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O	×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
P	×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
Q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R	Major Volunteer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Non-Major Private Certificates

공한 대학생들로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았다.

교육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일지 작성에서 교육의 목적에 따른 목표를 설계하고 각각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차후 교육에 적용하려는 교육프로그램 전반적인 기획 및 평가에 대한 미흡함이 나타났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아동의 특기적성을 찾을 수 있는 예체능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에 따른 진행 평가가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4.3 예체능교육에 대한 도움, 만족도, 재교육 희망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체능교육에 대한 도움정도, 교육 만족도, 재교육 희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된 예체능교육이 도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43.1%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44.9%가 “도움이 된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예체능교육에 도움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Table 3.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about help

		Gender		χ ²
		Male	Femal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helped me	So much	84(43.1)	65(33.2)	8.25*
	Sort of average	71(36.4)	88(44.9)	
	That's not true	40(20.5)	39(19.9)	
	Not quite so	0(0.0)	4(2.0)	

*p < .05 **p < .01 ***p < .001

예체능교육의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51.0%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42.6%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예체능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4. Satisfaction of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Gender		χ ²
		Male	Female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I participated in	So much	107(51.0)	89(42.6)	9.96*
	Sort of average	72(34.3)	86(41.1)	
	That's not true	28(13.3)	30(14.4)	
	Not quite so	0(0.0)	4(1.9)	
		3(1.4)	0(0.0)	

*p < .05 **p < .01 ***p < .001

예체능교육에 대한 재교육 희망도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43.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41.1%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지속적으로 예체능교육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예체능교육의 지속적 희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5. Reeducation Needs of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Gender		χ ²
		Male	Female	
I would like to continue to receive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 at Local Child Care Center	So much	92(43.8)	73(34.9)	11.67*
	Sort of average	85(40.5)	86(41.1)	
	That's not true	24(11.4)	45(21.5)	
	Not quite so	6(2.9)	5(2.4)	
		3(1.4)	0(0.0)	

*p < .05 **p < .01 ***p < .001

5. 결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방치되기 쉬운 아동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기관이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체능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예체능교육이 보다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에 경기도 17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예체능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3년 동안 예체능교육을 전혀 운영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 중 3개 기관이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체능교육을 실시한 지역아동센터는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었다. 2년 동안 예체능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2개 기관, 3년 동안 한번이라도 예체능교육을 지속한 기관은 1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었다.

교육 진행교사의 전공 일치도를 살펴보면, 17개 기관 미술, 음악 교육의 경우 비전공 경력자가 일반적이었다. 체육교육에서는 체육을 전공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많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체능교육에 대해서 이용아동들의 교육 만족도, 향후 재교육 희망도 등을 분석한 결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된 예체능교육은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예체능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예체능교육에 대한 재교육 희망도도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체능교육을 받고 있는 서비스이용 아동들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예체능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용아동들은 대부분 저소득 가구나 취약환경에 노출되어진 아동이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제공받지 못한 보육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체능교육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건강성을 도모할 수 있어 대상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목표를 설정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예체능교육이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진행이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은 예체능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운영을 비정규직 교육강사나 대학생의 봉사활동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근무기간이 짧거나 불안정하여 잦은 교육강사 교체로 인해 교육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4]. 정현주, 정여주(2009)는 음악교육의 경우 악기연주나 음악활동을 통해 감정을 승화시키거나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과제수행력,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 미술활동은 자기표현능력을 다양화 함으로써 해서 갈등 및 자기 욕구에 대한 표현능력이 향상되어 정서영역, 집중력향상, 동기유발, 또래관계 및 자기 정체성형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체육활동은 동작의 경험을 통해 협동감과 존중감을 경험하여 긍정적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9]. 이렇듯 예체능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자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예체능교육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부분에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예체능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의 배치와 교육지도를 위해 예체능 교육강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재정마련이 중요하다. 아울러 예체능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교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예체능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획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획은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여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다. 즉, 교육에 대한 기획은 지역아동센터의 예체능교육 실시 전 대상 집단을 이해하게 해주고, 필요성에 따른 실현

방법을 구체화 하며, 교육 진행 평가를 통해 목표의 성취 및 성과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기획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들의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예체능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체능교육을 통해 이용 아동의 창의적 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체능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결핍되어 있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건강성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Regional Children's Center Survey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olicy documents, 2015.
- [2] Regional Children's Center Central Support Team. "2017year Regional Children's Center Deepening evaluation committee Educational materials", Regional Children's Center Central Support Resources, pp. 34, 2017.
- [3] Heuhg-Sub Choe, Jung-Youl Baik, A Study on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for the Education of Creativity and Characters & Virtues targe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30, no. 2, pp. 89-111, 2014.
- [4] Na-Rae Bae, "A Study on Effect of the Children Culture Art Education Program Activity in Local Child Care Center-Focusing on Traditional dance program-",vol.18, no8, pp115-123. 2017.
- [5] Sung-Ja Kim, "Chung Nam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Saturday",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pp. 1-22, 2012.
- [6] So-hyun Kim,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Childhood Music Education and its Effective Teaching Methods,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2010.
- [7] Byung kil Choi, A Case Study(I) 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iterature-Art-Science" Integrated Education Programs, Korea Science & Art Forum, pp. 679-698, 2015.
- [8] Jae-bog Seo, A Survey on the Real Conditions of the Lesson in Physical Education and the Degree of Interes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rts and Physical Education Study, 1, pp. 101-120, 1996.
- [9] Hyun-Ju Chong, Yeo-Ju Chung, After-School Arts Therapy Education Programs: Facts and Teacher Perceptio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0, no. 3, pp. 55-79, 2009.

배 나 래(Na-Rae Bae)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철학박사)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